

‘박관현 법’ 만든다

민주 김동철 의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재판 중 피고인 사망해도 유족이 재심 청구”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재판 중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박관현 법’이 발의됐다.

김동철(광주 광산 갑)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특별재심을 통해 고(故) 박관현 열사의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재 1심 유죄판결이 공소 기각되면서 효력을 잃음에 따라 재심 청구 대상 판결도 사라졌다며 유족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박관현 열사는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반독재투쟁을 주도한 5·18 주역인데도 재판 중 숨지는 바람에 1심 유죄 판결을 바로잡지 못했다”며 “5·18 관련자들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자는 것이 법의 취지인 만큼 재판 중 사망한 사건도 특별재심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는 지난 1980년 4월 11일~5월 16일 전남대 등지에서 시위 등 대정부 투쟁을 벌인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 계엄법 위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관현 열사는 1982년 10월 12일 심근경색으로 숨졌으며 광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한 달 뒤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선대 이사에 학내 민주화 투사 선임되나

1988년 1·8항쟁 당시 옥상서 투신 이광호씨 추천 개방이사 후보 6명 놓고 이사회 선임절차 진행 중

조선대의 개방이사 공모에 이 대학 민주화운동 과정중 옥상에서 투신했던 사람이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조선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따르면 대학 법인이사회의 이사 9명 중 개방이사 3명을 뽑는 이사진 선임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개방이사 선임을 위해 공모를 실시했으며 여기에 14명이 지원, 이중 6명을 이사회에 추천했다.

전력상 눈길을 끈 인물은 현재 광주 동구청 사회단체협력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이광호(48)씨다.

이씨는 조선대가 학내 민주화 분장을 겪던 1988년 1월8일 경찰의 강제진압에 맞서 대학 본관 옥상에서 20여m 아래로 투신했다가 천운으로 목숨을 건졌다.

일반적으로 개방이사는 학교 재단이나 경영진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취보면, 단체장 출신이나 학자가 아닌 이씨 같은 후보가 오히려 개방이사에 적합하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오는 22일 1차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선임해 교육부의 승인을 얻으면, 이후 이씨를 비롯한 2차후보 4명 중 2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방이사 공모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합량이 부족한 인사나 부적합한 인사들이 많이 재공모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서구 방역기동반 발대

광주시 서구는 17일 오전 서구 상무2동 생학공원에서 모기, 파리 등 해충 방제를 위해 방역기동반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대원들이 연막 소독기를 시연해 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경찰 ‘4대악 근절’ 50일만에

성폭행범 등 91명 적발 13명 구속

등교하는 여중생을 끌고가는 성폭행하거나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 강간하려는 성폭행범을 비롯,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올리고 판매한 남성이 대거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4대악(惡)인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유통 사범에 대한 중간 점검을 벌인 결과, 단속 시작 50일간 모두 91명을 적발,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발족하고 최근 5년간 성폭력 미해결 사건(105건)에 대한 재수사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한 기수중지자들에게 대한 검거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져 59명을 붙잡아 13명을 구속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사범은 위해식품 제조·판매 행위 2명, 원산지 거짓 표시 5명, 무허가 도축·가축 판매 2명, 허위 과장광고 표시 4명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리고 판매한 5명도 입건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지난 3월부터 지난 2일까지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모두 53명을 적발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어린이에 못된 짓’ 80대 둘 쇠고랑

전남경찰 이례적 구속

한마을에 사는 어린이를 추행한 80대 남성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 모두 고령인 데다 동종 전과가 없지만 경찰의 ‘4대악’ 척결 방침에 따라 구속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모(81·강진군)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 가서 책을 읽어달라”며 같은 마을 중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옷을 벗겨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에도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박모(84)씨를 구속했다.

통상 피의자가 고령인 데다 초범일 경우 불구속 수사를 하는 전례에 비해 두 사람의 구속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가 ‘4대악’ 중 하나에 포함된다.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경찰 안팎의 평가다.

한편, 전남 지역 65세 이상 성폭력 범죄자는 2008년 21명(전체 성폭력자 524명), 2009년 21명(“ 501명), 2010년 36명(“ 613명), 2011년 29명(“ 571명), 지난해 42명(“ 629명)으로 늘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7분 해질 19시 07분 달돋이 11시 38분 달질 00시 57분

흐린 뒤 맑음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맑아졌다.

광주	구름 많음	11/18°C
목포	구름 많음	11/16°C
여수	구름 많음	12/19°C
나주	구름 많음	11/18°C
완도	구름 많음	11/18°C
구례	구름 많음	11/20°C
강진	구름 많음	11/18°C
해남	구름 많음	11/18°C
장흥	구름 많음	11/19°C
순천	구름 많음	12/20°C
영광	구름 많음	12/14°C
진도	구름 많음	10/15°C
전주	구름 많음	12/17°C
군산	구름 많음	9/15°C
남원	구름 많음	11/18°C
옥산도	구름 많음	9/13°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김기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1.0~2.0m 주의 높음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북동~동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북서~북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5m 목포 06:55 12:26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18:57 --:--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여수 01:42 07:52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13:42 20:12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4/17	6/13	4/18	4/19	6/19	10/19

전남대 서울사무소 개소...대의협력 강화

전남대학교가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전남대는 최근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사무소는 서울 출장 중 숙박이 필요한 교직원과 전남대가 초청한 해외 인사, 대학 관련 교외 인사들이 머물 수 있는 객실도 마련해 게스트하우스의 기능도 겸한다.

전남대는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수도권 소재 기업들과 협력교류사업을 활발히 하고 산학협력 증진과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 부처의 각종 국책사업 유치, 지방대 예산 확보, 대학의 주요 현안 해결에도 서울사무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무등산 찾는 탐방객 위해

1187-1번 시내버스 노선 연장 운행횟수 늘려

광주시는 “오는 20일부터 국립공원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1187-1번 시내버스의 노선을 연장하고, 운행횟수도 늘린다”고 밝혔다. 1187-1번 시내버스는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을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만 운행하는 노선으로, 원효사(산장)에서 법원 뒷길을 거쳐 산수오거리 구간만 운행해 왔으며 오는 20일부터 전남여고~가톨릭센터~문화전당역~동구청 정류소까지 노선을 연장

한다. 시는 1187-1번 노선연장으로 운행 시간이 25분에서 45분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일 운행횟수를 38회에서 48회로 늘리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187-1번 노선이 연장되면 문화전당역 등에서 지하철이나 다른 시내버스로 환승하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축복 받은 집” ...
씨푸드 뷔페 엘리시아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예약문의 엘리시아 예약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385-3000

구분	평일	주말, 공휴일
성인	23,000 / 27,000	30,000 / 33,000
초등학생	12,000 / 14,000	15,000 / 17,000
유아 (48개월이상)	7,000 / 9,000	10,000 / 12,000

위 금액은 VAT 포함가격입니다.
홈페이지(www.elysia.co.kr)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항상 1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할인 이벤트 진행중 (홈페이지 참조)

Complete View
새롭게 태어난 엘리시아만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완성되는 곳!
엘리시아 진벤션 웨딩홀 (나주)
☎ 061-332-1111

- 150석 규모 웨딩홀
- 100석 규모 연회장
- 50석 규모 연회장
-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고백연, 각종 세미나 (70명 이상서 가능)
- 돌잔치, 고백연, 각종 세미나 (40명 이상서 가능)

이음금액 (취매 1인기준)
★평일 20,000원~25,000원
★주말·공휴일 25,000원

※ 당일 및 세미나 사용은 상담 후 조정가능
※ 단체행사만 가능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www.flowerelysia.co.kr
에경사화환 / 축하화환 / 꽃바구니 / 꽃다발 인터넷주문,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능
☎ 062)513-4000

엘리시아 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꽃 + 엘리시아 식사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

나고야
제철음식 일식전문점
엘리시아 협력업체
예약전화(초밥 포장 및 배달가능)
☎ 385-9696
상무병원 응급실 건너편 / 주차장 완비

정식특선
참조기탕 12,000원
생우렁탕 12,000원
대구탕 15,000원
생선초밥 12,000원
특초밥 15,000원
생선구이 15,000원
굴비정식 20,000원
나고야정식 25,000원

정식코스요리
A코스 40,000원
B코스 50,000원
C코스 60,000원
(1인기준 2인이상)
주말 가족특선
4인 한상차림 100,000원 (토요일, 공휴일에 한함)

엘리시아진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연출과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되신 분들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빌드프로젝트 및 음향시설 완비

Special Service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샵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